재즈와 문학의 비교 분석-마일즈 데이비스와 이미지즘을 중심으로

김형천*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e-mail:hyung_chun@yahoo.com

Comparison and Analysis between Jazz and Literature-Focused on Miles Davis and Imagism

Hyoeng Chun Kim*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20세기 재즈의 흐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마일즈 데이비스로 그의 독창적인 시도와 새로운 접근방식은 현대 음악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건 그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흐름을 주도한다는 것은 현재 없던 것을 새로이 선보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르게 접근, 발전시킨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일즈 데이비스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시도 중에서 Nefertiti 라는 특정 곡을 중심으로 20세기 초에 에즈라 파운드를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형성되었던 이미지즘과의 연관성을 논하고자 한다. 음악과 문학은 항상 그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고 독창적인 예술가와 작가의 세계를 연결시켜보는 것 또한 커다란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1. 서론

20세기 초 재즈음악은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 뉴올리언즈인 것은 익히 잘 알려진 바이다. 재즈의 탄생을 뉴올리언즈로 보는 이유는 당시 활동 하던 유명 연주인들이 버디 볼든, 젤리 롤 모튼, 죠 킹 올리버, 루이 암스트롱 등으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한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1917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에 따라 뉴올리언즈의 홍등가는 쇠퇴하기 시작하고 제2의 재즈 중심은 북부 시카고로 이어진다. 당시 루이 암스트롱이 킹 올리버의 요청에 의해 시카고로 이주한 사건이 이를 더욱 부추긴 면이 없지 않다. 이후 다소 천박하고 자유로움 그 자체를 추구한 그 당시 재즈는 과거의 형식적인 음악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다.

20세기 초는 재즈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학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영국 문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었던 미국문학 내에서 낭만주의와 빅토리아적인 전통을 부정하는 이미지즘이 태동하게 되는데, 이들은 작품 내에서 작가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특정이미지 자체만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미지의 나열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과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을 지니고 있을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즘운동은 훗날 현대시 형성의 근간이 되는 커다란 의의를 제시하게 되는 업적을 이루게 된다.

에즈라 파운드(Ezra Loomis Pound, 1885 ~ 1972)는 이러한 이미지를 제시함과 동시에 시인에게 요청되는 감성과 지성, 감각과 정신의 통합적인 질서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들 중 한명이다. 잘 알려진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1865 ~ 1939)의 중기 이후 시편들에서도 이러한 이미지즘적인 표현을 살펴볼 수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1967년에 마일즈 데이비스가 Nefertiti에서 보여주었던 시도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보여 지며 이 연구에서 어느 정도 그 연결성을 찾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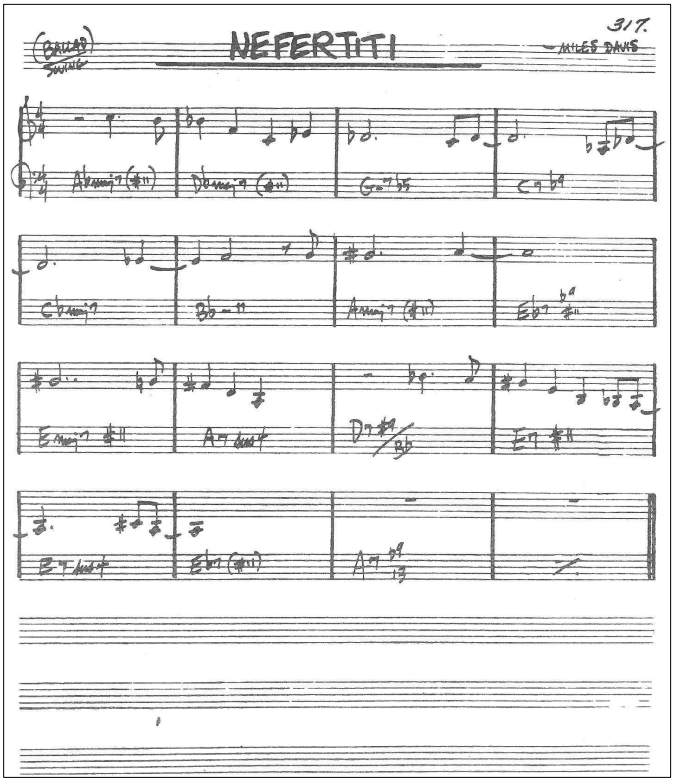
2. 본론

2.1. 마일즈 데이비스-Nefertiti

마일즈 데이비스의 Nefertiti는 그의 두 번째 5중주 편성에서 나온 음반이다. 이전에 시도 하였던 밥 위주의 5중주 편성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시도라는 것은 마일즈 데이비스 자신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젊은 뮤지션들의 영입으로서 현실화 된 것이다. 사실 Nefertiti는 색소폰 주자였던 웨인 쇼터(Wayne Shorter, 1933~)가 쓴 곡으로, 마일즈 데이비스는 이 곡에서 정형화된 연주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강렬한 멜로디의 효과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그간의 재즈, 현대 재즈도 마찬가지지만, 멜로디가 연주된 후 각 파트의 솔로가 연주되는 것이 통례인데 반해 Nefertiti라는 곡에서는 솔로의 부재는 물론 멜로디의 무한 반복만을 보여준다. 특이한 것은 통상적으로 상대적 단순 리듬의 반복 안에서 복잡한 솔로의 변화가 관례라면, 이 곡에서의 마일즈 데이비스적 접근 방식은 그와 반대로 멜로디의 단조로운 반복 안에서 리듬악기의 복잡한 변화, 그리고 피아노의 자유로우면서 복잡한 컴핑(Comping)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배경이 변화하고 있는 동시에 가장 중심인 멜로디 자체는 고정되어진 형태를 통하여 듣는 이들에게 강렬한 이미지 자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Nefertiti라는 곡을 마일즈 데이비스의 시도가 아닌 일반적인 연주 즉, 멜로디 이후 여러 악기의 솔로가 나오고 다시 마지막 멜로디가 등장하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접한 Nefertiti 멜로디의 강렬함은 전달되지 못한다. 이는 멜로디의 난해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처음 들어서는 간파하기 어려운 멜로디의 리듬적인 측면 또한 작용한다. 이를 마일즈 데이비스는 악보에서 보여 지는 멜로디의 리듬을 변형이 없는 상태로 반복적인 제시를 한다. 여기서 얻어지는 강렬한 효과가 바로 이미지적인 멜로디의 각인인데, 20세기 초에 발생한 이미지즘에서 보여준 이미지표현 효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그림 1] Nefertiti 악보

2.2. 이미지즘

이미지즘은 침체에 빠진 영미시의 전통적 표현 방식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운동으로 시어와 시의 기교적 혁신에 착안한 표현 방식이다.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10여년 정도만 진행되었지만 그 영향은 19세기 낭만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통찰력과 직관으로 미술과 문학 등 문화전반에 걸쳐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미지즘 운동은 영국의 철학자 흄(T.E. Hulme, 1883-1917)에 의하여 그 사상이 시작되어 에즈라 파운드에 와서 정리가 된 현대시의 모태라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사상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모호한 말이나 장식적인 언어는 그 표현에서 배척한다.
2. 새로운 감정은 새로운 리듬으로 표현해야 한다.
3. 소재의 선택은 자유로워야 한다. 즉, 같은 대상이라도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4.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한다.
5. 우리는 집중이 시의 본질이라 믿는다.

에즈라 파운드는 위의 사상을 '불필요한 형용사를 쓰지 말 것' 이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작가의 감정 개입과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들은 모두 한 가지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In a Station of the Metro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etals on a wet, black bough.

위 시는 에즈라 파운드의 작품으로 이미지즘의 대표적인 시이다. 원래 30행 길이에서 최종적 2행으로 단축시킨 것인데, 빠르게 달리는 지하철의 움직임과 대치되며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의 모습을 꽃잎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인간 삶의 순간성 따위의 암시로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여러 해석은 읽는 이들에게 남겨두고 한 가지 명료한 이미지만을 제시한 것이다.

글이라는 시각적인 방법으로부터 얻어지는 심상과 음악이라는 청각적인 방법에서 얻어진 심상 즉, 표현법 자체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미지즘 작품들의 이미지 효과는 마일즈 데이비스가 Nefertiti에서 시도했던 이미지상과 동일한 것이다. 이미지즘의 주요 사상들을 보더라도 모호한 말이나 장식적인 언어의 배척은 Nefertiti에서 일관된 멜로디의 반복으로 표현되어지고, 새로운 감정은 새로운 리듬으로 표현해야한다는 것은 멜로디의 배경인 토니 윌리엄스(Tony Williams, 1945-1997)의 드럼과 론 카터(Ron Carter, 1937-)의 베이스, 허비 행콕(Herbert Jeffrey Hancock, 1940-)의 컴핑에서 다소 복잡한 정도의 신선한 리듬적 시도로 표현되어진다. 자유로운 소재 선택이라는 측면 또한 코드진행에서 일반적 표현을 벗어난 그야말로 멜로디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되어진 진행을 사용함으로서 반복적인 멜로디 즉, 동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미지표현을 고수할 것과, 시의 본질은 '집중'이라는 이미지즘사상은 다양한 리듬적인 배경에 나타난 한 가지 고집스러운 멜로디의 반복을 통하여 이미지의 '집중'으로 마일즈 데이비스는 표현한다.

The Red Wheelbarrow

so much depends
upon

a red wheel
barrow

glazed with rain
water

beside the white
chickens.

에즈라 파운드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은 미국 이미지즘 시인 William Carlos Williams(1883-1963)의 작품 중 'The Red Wheelbarrow'에도 강한 이미지만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회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전체적인 느낌은 빨강색과 푸른색, 그리고 흰색의 조화를 보이고 있는데 빨간 손수레의 이미지가 나머지 색조들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a red wheelbarrow'에 무엇이 그렇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역시 첫 문장의 주어에 대한 의견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가장 핵심적인 빨간 손수레의 강렬한 이미지만을 제시한다. 운율감은 그대로 나타내면서 생동감 있는 주변 배경에 의한 중심 이미지의 극대화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Nefertiti에서 마일즈 데이비스가 보여준 멜로디 이미지가 생동감 있는 배경 리듬에 의하여 표출되어진 '각인'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겠다.

3. 결론

음악과 문학 사이에서의 연관성은 그 살아온 사회 환경에 의하여 상당한 밀접함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표현하고 있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지니고 있는 정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할 것이다. 재즈의 변천과정에서 실재로 이미지즘과 같은 문학적 운동이 직접적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인간의 의식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발전한 문화, 예술 분야 사이에서 상호유사성을 연구하는 것에는 충분히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이미지즘운동이지만 그 영향은 여러 문화, 예술 분야에 미치고 있으며, 음악이라는 작은 범위에서 보면 마일즈 데이비스가 Nefertiti에서 보여주었던 멜로디 이미지의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미지즘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에서의 운율적인 표현은 곧 음악에서의 리듬적인 요소이며, 그 표현은 문장 안에서 음악적인 리듬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글로서 표현되어진 운문이나 산문에서 나타난 시각적인 표현과 감성적인 언어예술 또한 상대적으로 음악이라는 소리예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음악이라는 범위 내에 국한된 표현은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울 것이며 새로운 감성을 표현하기보다 기계적인 답습에 그치기 쉬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보는바와 같이 음악의 흐름과 다른 예술의 흐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표현 방법이 현재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향후 진보적인 음악적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유이 쇼이치, “A History of Jazz”, 삼호출판사 1995
[2] 강대건, 김문수, “영미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6
[3] 박희진, 김문수, “영국문학사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사 2004
[4] John Szwed, “마일즈 데이비스”, 을유문화사 2005
[5] 이종학, “재즈가 좋다”, 무당미디어 1997
[6] 김영민, “에즈라 파운드”,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7] 김일구, “미국문학의 지평”, 미래교육기획 2010
[8] 김은철, “문예사조의 이해”, 새문사 2003